

※ 최근 일본 정부의 민간 제휴를 통한 신흥국 앞 건강검진시스템 등 의료산업 수출 추진 관련 뉴스 및 일본 주요기업의 의료산업 진출 현황 등을 정리한 자료임

일본, 관민 제휴로 신흥국 앞 의료산업 해외진출 추진

(2014. 8.)

동경사무소

1. 일본의 카자흐스탄 앞 건강검진시스템 수출

□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최근 민간기업과 제휴하여 “인간 도크(dock)”라고 불리는 일본의 독자적인 건강검진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결정

* 정보원 : 니혼게이자이신문 '14. 7. 29자 “人間ドック海外展開 官民連携、まずカザフに”

○ “인간 도크”는 신체를 폭넓게 검사하는 일본 독자적인 건강 진단시스템으로 암 조기발견 및 생활습관병 예방 등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됨

□ 일본 정부는 동 사업을 잠재력이 풍부한 신흥국 위주로 전개할 예정인 바, 우선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알마티)에 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할 계획임

○ 카자흐스탄은 구 소련시절 핵실험이 자주 실행된 지역으로 암 발병의 위험이 높아 건강검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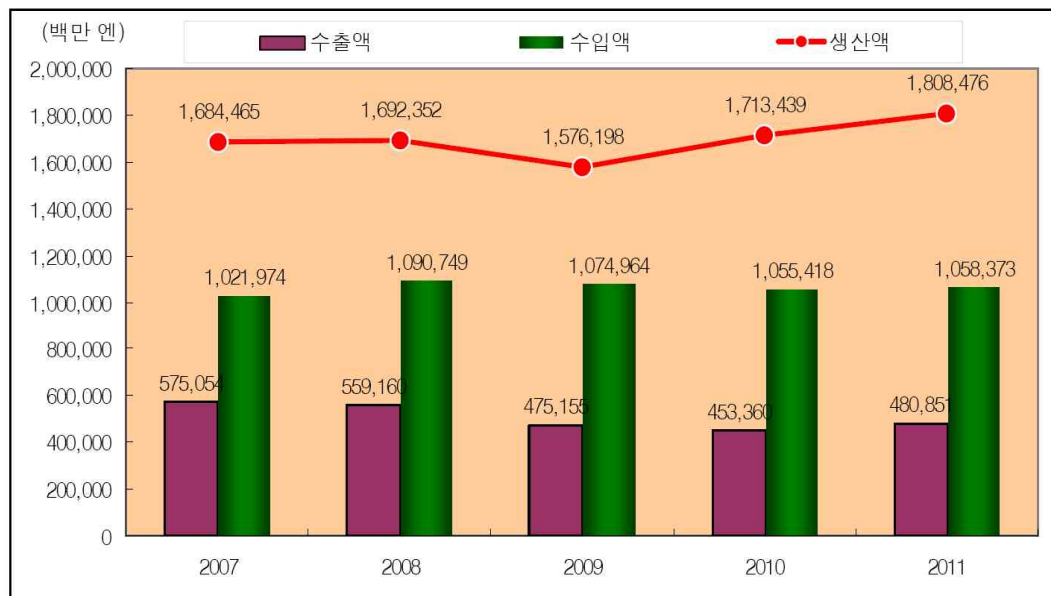
□ 동 사업에는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등 약 40개사가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메디컬 엑셀런스 재팬”도 적극 참여할 예정으로 특히 일본산 의료기기 수출에 주력할 전망이다

-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엔 정도가 예상되는 바, 일본 측이 6억엔, 카자흐가 5억엔을 각각 부담할 예정임
- 한편, 일본 정부는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등과도 협상중인 바, 동 사업은 중앙아시아에서만 400~500억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 일본 의료산업의 수출 등 관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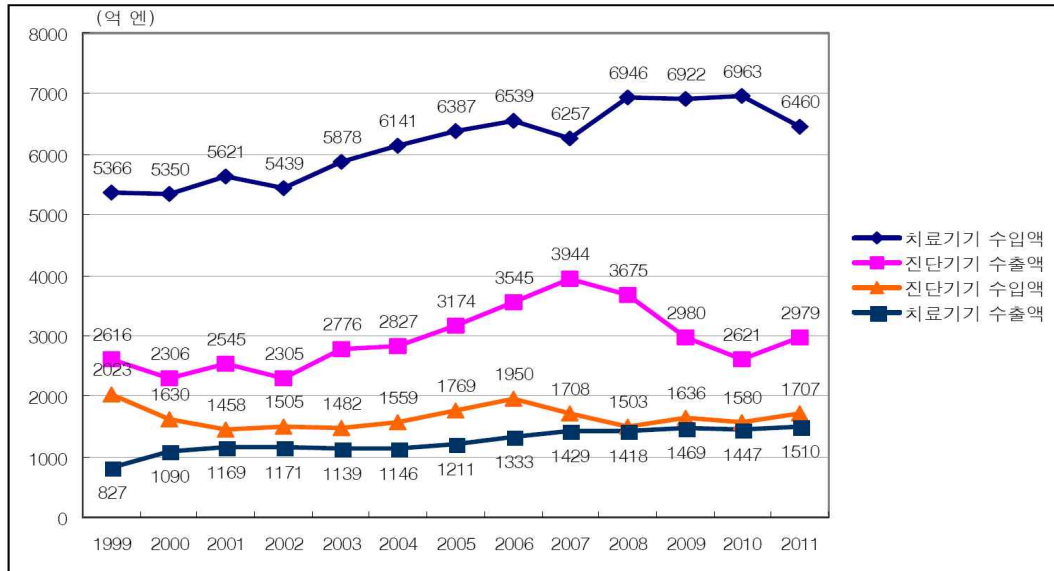
- 일본 정부는 2013년 중 아베노믹스의 주요 성장전략 중 하나로 의료산업의 해외전개 촉진을 채택하였는 바, 2020년 까지 현재의 3배 규모(1.5조엔)로 확대할 목표를 내걸고 있음
- 지역별으로는 잠재수요는 풍부하나 의료수준이 낮은 동남아 등 신흥국 위주로, 업종별로는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진단기기 및 의료 관련 서비스를 위주로 해외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됨

일본 의료기기의 수출입 규모 추이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약사공업생산 동태 통계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수출입 규모 추이



* 자료원 : 일본 후생노동성 약사공업생산 동태 통계

□ 특히, 의료법인사단 KNI는 약 20억 엔을 투자해 금년 중 캄보디아 프놈펜에 구급병원을 개설할 예정인 바, 병원 운영과 의료보험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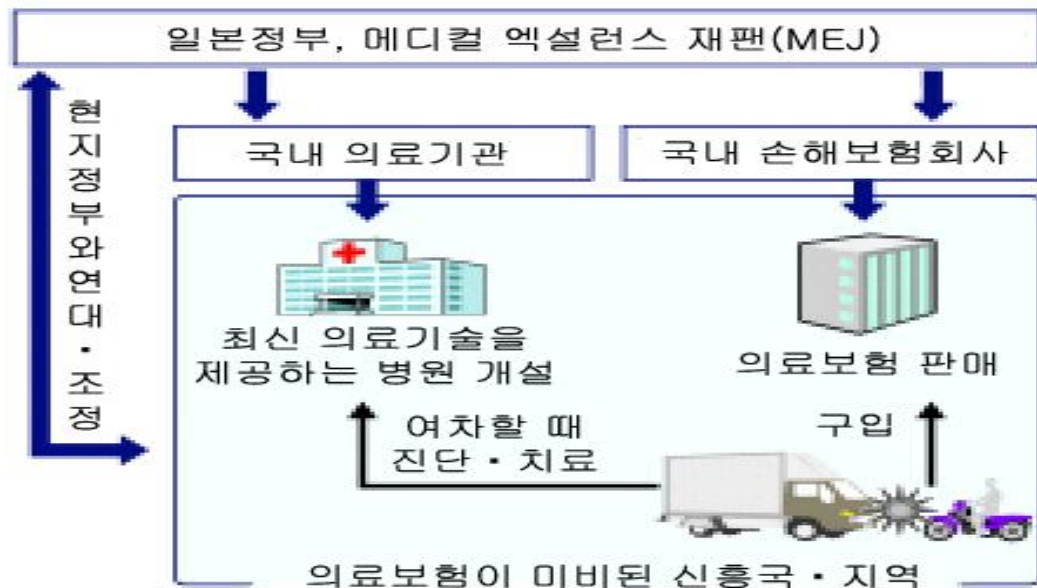
- 캄보디아는 오토바이 보급 증가로 교통사고가 급증 추세인 반면 의료수준이 낮고 의료보험제도도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음
- 이에 KNI는 병원 운영 및 의료보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고가의 의료기기를 구비한 구급병원 치료에 대한 환자의 청구 부담을 낮추고자 함
 - 현재 일본의 생명/손해보험이 캄보디아 내 의료보험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상 중

□ 일본 측은 이외에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개설했으며, UAE와는 방사선 치료병원 설치에 대해 협의 중임

□ 한편, 4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간단체인 “메디컬 엑셀런스 재팬(MEJ)”은 관민 제휴라는 일본 의료산업 해외진출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 중임

○ 해외진출을 검토하는 의료기관에 인재 및 노하우를 제공하고 현지 정부와의 교섭, 광고 활동 등을 담당

일본의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을 결합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세스



* 자료원 : 니혼게이자이신문

3. 주요 일본기업의 의료산업 관련 동향

□ 캐논, 소니, 파나소닉 등 일본 대표기업들은 기존의 가전·영상촬영 분야 등에서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의료산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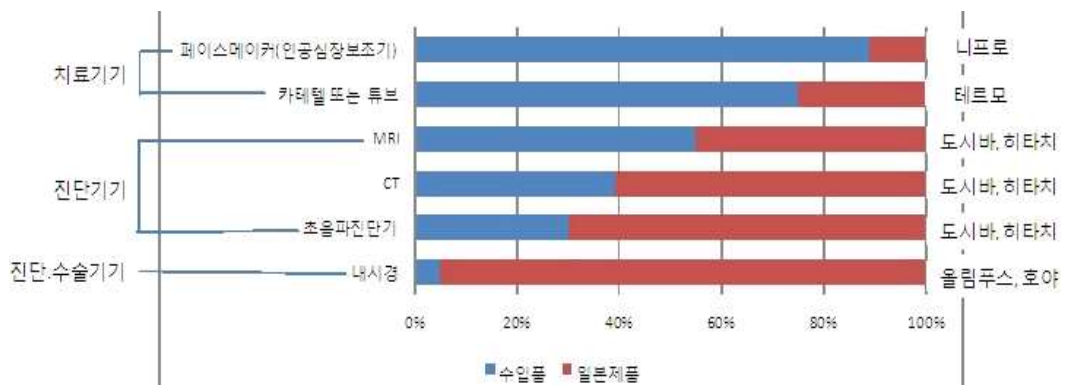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지멘스, GE 등 글로벌기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한 치료기기 사업보다는 일본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진단기기 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개중임

주요 일본기업의 의료기기 사업 진출 현황

기업명	주요 의료기기 제품
캐논	X선 촬영기, 안저(眼底) 카메라
소니	의료용 모니터, 내시경 카메라
후지필름	초음파진단기, 내시경
호야	내시경, 인공 뼈
르네사스	의료용 반도체
아사히	인공 간 등

*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주요 일본 제조업체별 의료기기 국산화 비율



* 자료원 : KOTRA 해외시장정보

□ 한편, 개별 일본기업의 최근 의료산업 투자 동향은 다음과 같음

- (파나소닉) 헬스케어 분야를 주요 전략사업 분야로 설정하고 총 30억 엔을 투입, 중국 및 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내 세계 Top 기업 진입 추구

- (소니·올림푸스) 영상기술(소니)-의료기술(올림푸스) 접목을 위해 '13. 4월 '소니올림푸스 메디칼 솔루션즈'를 설립하고 고성능 내시경 등을 중심으로 2020년까지 매출 700억엔 달성을 추진
- (니 콘) 카메라사업 부진 만회를 위해 기존 광학기술을 바탕으로 의료산업에 20억불을 신규 투자하여 2017년까지 매출 13억불 달성을 추진
- (도시바·히타치) CT, MRI, 초음파진단기 등 경쟁력을 보유한 진단기기 사업을 위주로 수년 내로 의료부문 매출액을 두배 이상으로 확대시킬 계획
- (캐논) 안과장비 및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등의 기존 의료사업 확대 외에도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의 디지털 의료 솔루션기업인 델프트DI를 M&A를 통해 인수
- (후지필름) 필름의 주원료인 콜라겐을 활용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브랜드인 '아스타리프트' 출시 등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로 사업다각화 실시
- (미쓰비시상사) 2015~2020년 중 필리핀에 10개의 병원을 건립할 예정으로 병원 건설에서 운영 지도, 기기 납품까지 총괄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00억엔임
- (미쓰이물산) 2011. 5월 주로 부유층 고객을 상대하는 아시아 최대 영리병원 사업체인 싱가포르 IHH헬스케어에 900억엔 규모의 자본 투자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분야에 간접 진출